

## 강평국의 3.1운동 참여와 수감

한금순\*

### 국문요약

제주 사람 강평국은 1919년 서울의 3.1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이면서도 여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다. 강평국은 1917년부터 박희도가 이끄는 비밀서클에 참여하였고 최은희, 최정숙, 고수선 등과 함께 비밀서클의 주요인물로 활동을 이끌었다. 강평국은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으로 학생들을 이끌던 수령급 중 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아있다. 강평국은 1919년 2월 28일 제주도 남학생 박규훈 등에게서 3월 1일의 만세운동의 실시를 전달받고 학교 내에 알렸다. 3월 1일 강평국은 비밀서클 동지들과 함께 단힌 교문을 부수고 학생들을 만세 행렬로 이끌어 서울 시내 일대를 하루 종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다녔다. 강평국은 인가에 숨어들어가 체포되지 않았다.

3월 5일 강평국은 다시 기숙사생 전원을 이끌고 남대문역 광장의 제2차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여 서울 시내를 행진하며 독립만세를 불렀다. 강평국은 제2차 만세시위운동으로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었다. 비밀서클의 주요 인물이었던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7명이 함께 수감되어 있다가 3월 24일 석방되었다. 강평국은 1933년 요절하였고 유족도

---

\* 남녕고등학교

없어 그의 뜻을 제대로 기리지 못하고 있다.

주제어 : 강평국, 3.1운동, 제주도독립운동가, 여성독립운동가, 서대문형무소

## I. 머리말

강평국은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을 이끌고 참여하였다. 그리고 1919년 3월 5일 제2차 만세시위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기숙사생 70여 명을 이끌고 참여하였다가 검거되어 서대문형무소<sup>1)</sup>에 수감되었다. 함께 활동했던 제주 사람으로 최정숙, 고수선과 경성고등보통학교의 박규훈 등이 있다. 그러나 강평국의 활동 관련 자료는 다른 인물들의 활동 기록 속에 단편적으로 남아있을 뿐이어서 강평국의 독립운동을 증명하기가 손쉽지 않다. 본고는 강평국 주변 인물들의 활동을 살피고 강평국과의 교류 등을 통하여 강평국의 3.1운동 참여를 확인하고자 한다.

강평국은 1917년 박희도가 이끄는 비밀서클<sup>2)</sup>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친구인 최은희, 최정숙, 고수선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학교 내에서 주도적으로 학생들을 이끌었던 인물로 경성종로경찰서장이 파악하고 있던 강평국은 최은희 등과 함께 고종의 대한문 곡반에 기숙사 학생 전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2월 말일경부터 탑골공원에서의 만세선언에 학생들을 이끌고 참여할 것에 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1) '서대문형무소'는 1923년부터 사용된 명칭이나 현재 서대문형무소로 역사관도 건립되어 있어 이렇게 표현하였다. 1919년 당시는 '서대문감옥'이 맞는 명칭이다.(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비밀서클'이란 용어는 최은희의 기록(『여성 전진 70년』)을 토대로 그대로 사용한다.

3월 1일 만세시위에 참여 서울 시내 일대를 독립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였다. 3월 5일 제2차 만세시위운동에 기숙사생 전원을 다시 이끌고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이후 제주도로 귀향한 강평국은 여성운동과 교육운동을 통한 민족운동에 앞장선다. 여성교육기관인 여수원을 건립해내는 등으로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조천부인회와 제주여자청년회를 결성해내어 여성운동과 교육운동을 통한 민족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1926년에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를 다니며 동경에서는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을 통한 민족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이기도 하다. 박화성과 함께 근우회 동경지회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으로 33세에 요절하기까지 민족운동을 위한 삶을 살았다.

본고는 강평국의 평생의 민족운동 활동 중 3.1운동 참여 활동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강평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여 그의 활동이 조명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3.1운동 참여 부분부터 세세하게 정리하고자 함이다. 강평국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것은 유족이 없음과 일제강점기에 요절하여 해방 후의 활동이 없음 등이 그 원인일 것으로 생각한다. 3.1운동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연구할 것이다.

## II. 박희도의 비밀서클 활동 참여

강평국은 1900년 제주읍 일도리 태생이다. 1909년 신성여학교에 입학하여 1914년 1회로 졸업하고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였다.

강평국은 1917년부터 박희도의 비밀서클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준비하였다. 박희도는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으로 독립선언

문에 서명하고 태화관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sup>3)</sup>

박희도와 이갑성은 독립을 피하고 운동을 하려면 경성에서 학생을 규합하고 그 실행 방법을 맡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몰래 학생 간의 사상동정을 살피고 거사에 대비하려고(경성지방법원: 1919. 8. 30.)

「예심중결결정서」의 내용이다. 박희도는 독립운동을 위해 학생을 규합하고 실행을 맡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독립운동을 위한 학생 조직을 꾸렸다.

최은희는 강평국과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의 친구이며, 3.1운동으로 두 번의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이다.<sup>4)</sup> 후일 근우회 중앙위원으로 활동을 주도하고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기도 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최은희의 회고<sup>5)</sup>에 의하면 박희도의 비밀서클은 1917년 조직되었고 민족대표 33인의 직접 지도를 받았다고 한다. 그 지도로 인해 정신 무장이 되었고 교내에서 항일투쟁을 벌일 수 있었던 힘이 되었다고 한다.

경성여고보는 전국의 수재가 모이는 학교라 일찍부터 민족운동자

- 
- 3) 박희도: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1인으로서 독립선언문에 서명하고 태화관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날 경무총감부의 유치장에 구금된 뒤 2년형의 옥고를 치렀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4) 최은희: 1919년 3월 1일 당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재학중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으며, 이후 다시 태극기와 격문을 만들어 배천읍 장터의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출처: 국가보훈처).
  - 5) 최은희의 회고는 『여성 전진 70년』(추계 최은희 기념사업회, 1991.)과 『한국 근대 여성사』(상, 중, 하)(추계 최은희 문화사업회, 1991.)와 『여성을 넘어 아낙의 너울을 벗고』(최은희, 문이재, 2003.) 등이 더 있다. 본고에서는 세 자료의 같은 내용인 경우는 『조국을 찾기까지』중(최은희, 탐구당, 1979.)을 인용할 것이다.

들의 관심이 컸었고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의 실패를 산 증거로 보여 주기 위하여 33인 측에서 직접 지도를 하였던 것이다. ...생략... 경성여고보가 기미운동에 선봉으로 나섰던 것은 결코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2년 전인 1917년부터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분인 해주 출신 박희도(朴熙道)의 지도로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의 비밀서클이 조직되어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고, 우선 교내에서 항일투쟁을 벌여왔던 것이다.(최은희, 1991: 105)

서울의 많은 여학교 중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하나만이 3월 1일의 시위행진에 참가하게 된 것은 2년여의 비밀서클 활동을 통해 박희도에게서 사상면으로 공부한 덕분이라 한다.

서울에도 수많은 여학교가 있었지만,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하나만이 3월 1일 시위 행진에 참가하게 된 것은 1917년부터 비밀 서클을 조직하고 2년 동안 고차원의 정신 세계를 직접 열어준 박희도 선생의 공적이라 할 것이다. 당시의 학생들은 사상 방면에 매우 굶주렸던 것이다. 나는 지금 생각하여도 내가 공부를 하러 학교에를 다녔는지 배일운동을 하러 학교에를 다녔는지 분간할 수 없다.(최은희, 1991: 65)

강평국은 박희도의 비밀서클의 주요 인물이었다.

나는 동급생을 비롯하여 본과기예과사범과에 끌고루 손을 펴서 동지를 규합하기 위하여 하숙집을 나와 기숙사로 들어갔다. 우리들 4인 이외에 최근 제주도교육감을 지낸 최정숙, 현 제주도 홍익보육원장 고수선과 강평국 이남재 노순열 이은 김일조 이덕요 이정의 유재룡 이금자 등이 그때의 멤버들로 중추인물이었고, 의정여학교 후배로 총독부 병원 간호부가 된 차정순도 함께 모였다.(최은희, 1979: 92~93)

박희도의 비밀서클은 강평국을 비롯한 최은희 최정숙, 노순열, 이남재, 유재룡, 이금자 등 7명의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중추

멤버였고, 3.1운동으로 이 7명은 서대문형무소에 함께 수감되기도 한다.(최은희, 1979: 104)

비밀서클은 영신학교를 근거지로 하여 매주 일요일 2시에 모였다. 박희도(민족대표 33인), 손정도(독립장, 1962), 오화영(민족대표 33인, 대통령장, 1989), 현순(독립장, 1963) 등으로부터 독립운동과 관련한 강의를 듣기도 하는 등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위한 비밀 모임이었다.

우리는 영신학교 교실을 근거지로 하여 절대로 비밀이 보장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매주일 오후 2시마다 중앙예배당 엽윗(懿法) 청년회 주최로 열리는 강연회에도 출석하였다. 윤치호·신홍우·손정도·오화영·정춘수·박희도·현순·김창준 등이 연사로 나왔던 것 같다.(최은희, 1979: 93)

비밀서클의 활동은 강연회 좌담회 등을 통해 독립정신을 강화시키는 공부를 하는 것이었다. 민족지도급 인사들이 연사로 나왔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강연을 듣도록 권장하며 회원을 늘려나갔다.

박 선생의 지도로 강연회·좌담회 등이 열리는 것이었다. 혹은 그 시간에 중앙예배당 엽윗 청년회가 주최하는 강연회에도 출석하였다. 민족 지도급 인사들이 연사로 나오기 때문이다. 공개적이라 하지만 강연 내용은 언중(言中)의 유언(有言)으로 모두 비유를 해서 독립정신을 강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였던 것이다. 수박 겉핥기로 명하니 듣고 앉았던 형사들은 아무 풀이도 못한 채 그냥 돌아가 버리는 고로 그들은 그 모임의 진수를 몰랐었다고 할 수 있다. 비밀을 보장하는 우리 서클에서는 서로 손을 나누어 전체 학생들을 움직여 엽윗 청년회 강연을 듣도록 힘쓰고 거기서 추어 올려 우리 회원을 만들기로 하였다.(최은희, 1991: 58)

비밀서클의 회원은 1918년에 20여 명이였다. 비밀서클은 박희도

의 지도 아래 청투에 몸을 팔고 있는 유복동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sup>6)</sup>

1918년 가을, 8월 한가위를 전후한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우리들은 박희도를 중심으로 영신학교 교실에 모였다. 서클 인원이 20여 명으로 늘었을 때였다. ...생략... 김숙자·김일조·고수선·강평국·필자 등은 각종 물품을 거두어 교회 유지들에게 팔아 총계 1백 17원의 현금을 만들었다. 1주일 만에 박희도와 학생 대표로 최고 연장자인 김숙자가 검정 통치마에 흰 저고리 한 벌과 버선과 경제화를 사가지고 인천 우창루로 찾아갔다. ...생략... 우리들은 남대문역까지 나가서 그녀를 맞아다가 그날 오후 4시 중앙예배당에서 '인실반진(仁實返眞) 환영회'를 열었다.(최은희, 1991: 108)

강평국과 최은희, 고수선 등은 비밀서클 회원들과 각종 물품을 거두어 팔거나 성금을 각출하는 등으로 일주일 만에 돈을 마련하여 유복동을 구출해내었다.

1919년 비밀서클 강평국, 최은희 등은 고종의 죽음을 애도하는 대한문 곡반에 참여하기 위해 기숙사 통곡 시위를 주도하였고, 기숙사 학생 70여 명 중 방 당번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대한문 곡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도 하였다.

그날 밤 기숙사에 있는 우리 동지들은 기숙생 70여 명 전체를 사감실 앞으로 불러내어 『우리도 곡반에 나가겠다』는 연좌데모를 하였다. 쓰지꾸(都竹) 사감은 고수선·김일조·김숙자를 사감실로 불러 앉히고 수학선생인 아사노(淺野) 사감은 수학의 천재라면서 몹시 사랑하고 칭찬하던 필자를 탄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은근히 달래었다. 그러나 그날 밤 우리는 기어이 투지를 관철시켜 각 방의 당번 한 사람씩만 남겨놓고 기숙생 전체

6) 이러한 활동은 후일 강평국이 여성운동을 하는 여러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후 연구 과제이다.

가 대한문 앞에 가서 망곡(望哭)을 하고 돌아왔다.(최은희, 1979: 95~96)

뿐만 아니라 고종의 성복날을 위해 교복을 찢어 검정 나비 조표와 검정 땀가죽을 만들어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활동도 하였다. 이일로 비밀서클의 동지가 더 늘어나기도 하였다.

내일은 고종 황제의 성복날인 것이다. 필자는 교복으로 입을 검정 나뭇잎을 받기받기 찢어서 땀가죽을 얼마든지 접었다. 나비조표도 접었다. 몇 사람의 동지도 자기 치마를 들고 와서 그같이 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 기숙사 각방에는 학생의 수효대로 그것이 분배되었고, 학생 통용문이 열리면서부터는 문 앞을 지키고 섰던 우리 동지들이 통학생이 들어오는 대로 자주 땀가죽을 뽑고 검정 땀가죽을 드려 주었다. 머리를 틀어올린 학생들에게는 나비 조표를 꽂아 주었다. 현현 선생은 우리들의 이 같은 행동을 바라보고 빙그레 웃었다. 그날 조회는 마당에서 열렸다. 선생들은 학생들의 열 속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머리 뒤를 조사하였다. 보나마나 검정 일색의 땀가죽이 드리워졌던 것이다. 이 일을 치르고 나서 우리는 7, 8명의 동지를 더 얻었다.(최은희, 1979: 96)

2월 중순 종로 중앙청년회관에서 열린 옛새 동안의 민족 지도자들의 시국대강연회에 기숙사생들을 참석시키기 위한 활동도 하였다.

기미 만세운동의 거사를 앞두고 그해 2월 중순 종로 중앙 청년회관에서 옛새 동안 열린 민족 지도자들의 시국 대강연회에 기숙생 전체를 참석시켜 달라고 사감 선생에게 떼를 써서 교직원회의 양해를 얻어 하룻밤만은 사감의 인솔로 데리고 나가고(최은희, 1991: 60)

이러한 활동으로 3.1운동이 일어날 즈음에는 “비밀서클 인원이 42명”(최은희, 1979: 96)이었다.

1919년 2월 28일 최은희는 박희도에게서 선언서 한 장을 전달받

고 3월 1일 정오 파고다공원으로 나올 것을 지시받았고, 기숙사에 돌아와 비밀서클 동지들과 선언서를 함께 보며 전교생을 이끌고 나갈 일을 논의하였으며, 기숙생과 통학생 동지들에게 소식을 알렸다.

2월 28일 저녁때 나는 박희도 선생의 부름을 받아 그 맥으로 가서 선언서 한 장과 '내일 오정 파고다 공원으로 전체 학생을 인솔하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는 기숙생과 통학생 동지들에게 이튿날 아침까지 이 일을 다 알렸다.(최은희, 2003: 16)

돌아오는 길로 과자추렴을 핑계 삼아 7, 8인의 동지가 모인 기숙사 식모방에는 선언서 한 장이 펼쳐졌다.

『내일 오정(밤 사이 시간 변경) 전교생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최은희, 1979: 97)

강평국의 2월 28일의 행적에 대해서는 일제의 법정 문서 기록이 또 있다. 경성종로경찰서 생산 문서인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위 관련자 동정 및 성행 조회」(경성종로경찰서장, 1919. 3. 27.) 문서이다. 이 문서는 3.1운동으로 체포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학교로 학생들의 동정과 성향을 조회하여 보고 받은 문서이다. 종로경찰서장은 이 문서를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에 제출하였다.

이번의 소요에 관해서도 본인은 이미 남학생 측에게서 2월 26·7일경에 독립운동 소요의 상의를 받은 모양이며, 동 27일인지 28일경에는 동숙생 최정숙, 강평국, 유재룡, 이명숙, 고수선, 김일조 등과 협의 상의를 마치고 오로지 그 기일의 도래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형적이 충분하여(경성종로경찰서장, 1919. 3. 27.)<sup>7)</sup>

7) 원문은 “今回ノ騷擾ニ關シテモ本人ハ巳ニ男生徒側ヨリ2月26·7日頃ニ獨立運動騷キノ相談ヲ受ケタル模様ニテ、同27日カ28日頃ニハ同宿生崔貞淑, 姜平國, 俞在龍, 李明淑, 高守善, 金日祚等ト打合相談纏リ只管期日ノ到來ヲ待ち居タル形跡充分ニシテ,”이다. 원문을 기준으로 하여 필자가

경찰이 조회한 결과, 강평국은 최은희, 최정숙 등과 함께 3월 1일 이전에 독립운동 관련 상의를 하고 기일의 도래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행적이 뚜렷하였다고 학교 관계자들이 말함을 보고하고 있다. 이 문서는 비밀서클로 결속되었던 강평국, 최은희, 최정숙의 학교 내에서의 주도적 활동을 증명해 주는 문서이다. 이들은 독립운동을 사전에 계획하고 외부와 연락하며 그 준비를 해내고 있었다.

2월 28일 밤 제주도에서 경성에 유학하는 “남학생 2명이 강평국, 최정숙, 고수선을 만나고 가기도”(최은희, 1979: 97) 하였다.

1919년 서울에서 3.1운동에 참여한 제주도 남학생으로는 박규훈<sup>8)</sup>과 채순병<sup>9)</sup>이 있다. 박규훈은 1919년 경성고등보통학교 4학년 학생이었고, 채순병은 국어보급학관 학생으로 3.1운동에 참여하였다. 고수선의 기록 “강평국과 나는 외부 연락을 했다. 박규훈씨가 창으로 상황설명을 하고 우리는 끝까지 종로경찰서 앞까지 갔다.”(제주문화원, 1998: 429)에 의하면 강평국과 외부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 바로 박규훈임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강평국은 1917년부터 박희도의 비밀서클에

---

다시 번역하였다.

- 8) 박규훈: 대통령표창(1992). 1919년 3월 1일 당시 경성고등보통학교 4년생으로 서울 탑동공원에서 진행된 독립선언 행사에 참가 하여 다수의 시위군중과 함께 파고다 공원을 뛰쳐나와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내를 행진하며 일군 헌병과 일경의 무차별 총격에도 굴하지 않고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같은 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출처: 국가보훈처).
- 9) 채순병: 애족장(1990). 1919년 3월 4일 서울 학생단 주도 독립만세운동을 높이기 위하여 격문 400여 매를 만들어 중학동을 비롯 부근 각동에 배부하고, 남대문역전 독립만세시위에 군중을 동원하며, 3월 5일에는 수백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조선독립」이란 깃발을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중 피체되어 징역 10월을 받았으며 미결기간을 합산하며 1년 3월여 간의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출처: 국가보훈처).

참여, 활동을 주도하며 같은 학교 친구인 최은희, 최정숙, 고수선과 사전에 독립 만세운동을 준비하였으며, 제주도 남학생인 박규훈 등과의 연락을 주고받으며 3.1만세운동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Ⅲ. 강평국의 3.1운동 참여

#### 1. 3월 1일 만세운동 참여 주도

강평국을 비롯한 비밀서클의 최은희, 최정숙 등은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을 이끌고 3월 1일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통학생과 기숙사생에 끼어 있거나 각급 학년에 끼어 있던 비밀서클 동지들이 앞장서며 300여 명의 전교생을 만세 대열로 이끌었다.

통학생, 기숙생, 각급 학년에 끼어 있는 우리 동지들이 앞장서고 그 뒤를 이어 일반 학생들도 2, 3 인씩 기숙사로 자꾸 몰려 내려왔다. 그날의 분위기는 긴장하고도 침착하였으며, 입을 떼어 말하는 이가 없었다. 한 모퉁이로 모여 섰던 우리 동지 몇 사람이

『대문을 뺏개자!』

하고 고함을 질렀다. 우리는 도끼와 식칼과 돌맹이를 닦치는 대로 집어들고 두들겨 부셨다. 뺏개진 대문짝을 짓밟고 넘어서 학생들은 골목 밖으로 우루루 쏟아져 거리로 나갔다. 10 호실 들창을 넘어 먼저 나온 학생들도 있었다. 그때까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섰던 학생들도 뒤따라 나오며 두 손을 높이 들고 대한 독립만세를 힘차게 불렀다. 멀리서 만세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삼백여명 전교생은 선생들이 학교에서 직원회 하는 틈을 타서 몽땅 거리로 빠져나오게 되었다.(최은희, 1979: 98~99)

서울의 일곱 개 여학교 중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만 만세행진에

참여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비밀서클이 사전에 계획을 주고받고, 3월 1일에도 학생들을 인솔하는 역할을 강평국, 최은희 등의 비밀서클 조직이 주도하여 수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3월 1일 서울에서는 이화·배화·진명·숙명·동덕·정신 등 일곱 여학교 중에서 유독 총독부에서 경영하는 경성여고보 하나만이 만세행진에 참가하였다.(최은희, 2003: 16)

강평국은 최은희, 최정숙과 함께 비밀서클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던 수령급들이라고 일제 경찰이 파악하고 있었던 기록이 있다. 바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위관련자 동정 및 성행 조회」(경성중로경찰서장, 1919. 3. 27.) 문서로 그중 최은희에 대한 보고서 내용에 언급된다. “동교에서 수령급은 본인 및 최정숙, 강평국이 수령 중의 주된 자라고 그 학교 내의 학생 및 직원은 말했다.”(경성중로경찰서장, 1919. 3. 27.)<sup>10)</sup> 이 문서는 강평국이 최은희, 최정숙과 함께 학교에서 수령 중의 주된 자라고 학생과 직원들이 말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문서이다.

또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위관련자 동정 및 성행 조회」중 최정숙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2월 27, 8일경부터 최은희 강평국과 독립운동의 계획을 밀의한 흔적이 뚜렷하다는 보고도 하고 있다.

一. 본인은 학업성적이 좋으므로 교내 및 기숙사에서 세력을 얻어 그 학교 내에서 학생의 주도권을 쥐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학생

10) 원문은“同校ニ於ケル首領株ハ本人及崔貞淑, 姜平國ガ首領中ノ主ナル者ナリト同校内ノ生徒及職員ハ語レリ.”이다. 원문을 기준으로 하여 필자가 다시 번역하였다.

소요사건에 관해서 그 학교 직원은 말하기를, 본인은 이미 지난달 27·8 일 경부터 그 학교 기숙사생 최은희, 강평국과 함께 독립운동의 계획을 학생 사이에서 밀의한 흔적이 뚜렷하고(경성중로경찰서장, 1919. 3. 27.)<sup>11)</sup>

이렇게 강평국은 학교 내에서 수령급으로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실력자로서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3월 1일 만세운동 참여에 대한 기록은 다수가 있다. 그중 일제의 법정 문서인 「3.1 독립시위 관련자 예심조서 최정숙 신문조서」를 통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금순, 2015: 40~41)

문 : 피고는 기숙사에 있었는가.

답 : 그렇다.

문 : 몇 사람이나 기숙하고 있었는가.

답 : 70 명쯤 있었다.

문 : 최은희를 아는가.

답 : 알고 있다.

문 : 강평국·유재룡·이명숙·고수선·김일조 등을 아는가.

답 : 이명숙을 제외한 그 밖의 사람은 모두 같은 학급 사람이므로 알고 있다.(경성지방법원, 1919. 6. 26.)

최정숙의 신문조서 기록을 통해 강평국, 고수선이 만세운동에 함께 하였다는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신문은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신문자는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굴직희(堀直喜)이다. 신문자인 조선총독부 판사가 강평국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

11) 원문은“本人ハ成積可良ナルヨリ校内及寄宿舎ニ於テモ勢力ヲ得テ同校内ニ於ケル生徒ノ牛耳ヲ握ル實權ヲ有シ居ルモノナルガ, 學生擾事件ニ關シ同校職員ハ語ッテ曰ク, 本人ハ巳ニ客月27·8日頃ヨリ同校寄宿舎生崔恩喜, 姜平國ト共ニ獨立運動企劃ノ事ヲ生徒間ニ密議シタル事蹟明ニシテ,”이다. 원문을 기준으로 하여 필자가 다시 번역하였다.

해볼 필요가 있다. 최은희, 강평국, 고수선 등의 만세운동 참여 정황을 확보하고 최정숙에게 확인하기 위한 신문 과정의 기록이다. 최정숙은 같은 학급 친구들이라 아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였다.

예심판사는 계속하여 강평국의 행적을 최정숙에게 신문한다. 3월 1일 기숙사를 나올 때는 학생들이 모두 함께 나왔다는데 강평국도 같이 나왔는지를 묻는다.

문 : 3월 1일 기숙사를 나올 때에는 모두가 함께 나왔는가.

답 : 함께 나왔다.

문 : 그때 최은희·강평국 등도 같이 나왔는가.

답 : 기숙사생이 같이 나왔지만 누구 누구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경성지방법원, 1919. 6. 26.)

그러나 일제는 강평국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 수집하고 최정숙을 통해 강평국의 죄를 찾으려 신문하고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한금순, 2015: 43)

문 : 군중이 독립만세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했는가.

답 : 그 이전에 학교에서 선생에게 일본에서 조선유학생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을 듣고, 그것에 대한 주의를 받은 일이 있었으므로, 군중이 독립만세라고 외치는 것을 듣고 독립운동이란 것을 알았다.

문 : 그런 것이 아니고, 최은희·강평국 등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서 독립운동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듣고 학교에서 상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

답 : 그런 일이 없다. 3월 1일에 비로소 알았던 것이다.

문 : 순사 구송번(久松繁)의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의 학교 선생은 그 이전부터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들었다는데 어떤가.

답 : 나는 독립운동에 대해 들은 일 없다.(경성지방법원, 1919. 6. 26.)

총독부 판사는 최정숙에게 강평국 등과 독립운동에 대해 사전에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어 알고 있으면서 학교에서 상의하였던 것이 아니냐고 신문하였다. 예심계 판사가 언급하는 순사 구송번(久松繁)의 보고서는 바로 앞에서 본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위관련자 동정 및 성행 조회」(경성종로경찰서장, 1919. 3. 27.)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판사들의 여러 차례의 질문에 강평국과의 연관 행적은 모두 부인되어, 판사들은 강평국이 주도자임을 파악했음에도 만세운동 행적을 탐문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이를 종합해 보면 강평국은 비밀서클을 주도하는 수령급 인물로 2월 27, 8일경부터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3월 1일의 독립 만세운동을 준비하였다. 3월 1일에는 비밀서클 회원들과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의 통학생 및 기숙사생 300여 명의 만세 행진 참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 2. 서울 시내 만세 행진 참여

강평국 등 비밀서클은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온종일 서울 시내를 누비고 다니며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우리는 온종일 시가를 누비고 다니면서 손가락을 깨물어 손수건에 대한독립만세라고 혈서를 쓰는 청년, 백립을 쓴 노인, 검정 갓 꼭대기에 흰 종이를 동그랗게 올려붙인 시골 샌님도 많이 보았다.(최은희, 2003: 17)

강평국 등의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3월 1일 서울 시내에서의 만세운동 참여 경로는 최은희와 최정숙의 기록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최은희의 기록에 의하면 탑골공원에서 나오는 만세군중을 따라 천도교 총본부 쪽의 대열에 합류하여 경운동의 학교정문을 지나 재동 네거리에서 한 패는 창덕궁 쪽으로 한 패는 안국동 경복궁 쪽으로 행진하였다.

우리가 구보를 해서 탑골 공원 북편 문을 향해 달려가다가 벌써 탑골 공원에서 선언식을 마치고 물밀 듯이 밀려나오는 만세군중들과 마주쳤다. 우리는 천도교 총본부를 향해 올라오는 그 대열 속에 끼여 들어가서 우리 학교 정문을 지나갔다. 그때 우리학교는 경운동 목조 2층 집이었다. ...생략... 우리들은 선생들 턱 앞에 두 손을 바싹 들이대고 높은 소리로 『독립만세!』 『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하고 통쾌하게 외쳤다. 재동 네거리에서 한패는 창덕궁 쪽으로 넘어가고 한 패는 안국동을 거쳐 경복궁 쪽을 향하여 갔다.(최은희, 1979: 99)

송현마루(현재 종로구 중학동) 턱을 지나 육조 앞 광장(현재 광화문 광장 일대) 황토마루(현재 세종로 네거리)에서 서대문 쪽으로 향했다. 독일영사관(현재 종로구 교남동)을 돌아 의주통(현재 중구 의주로)으로, 합동 프랑스영사관(현재 서대문구 합동)에 들어가 만세를 부르고 서소문(현재 중구 서소문동)을 돌아 대한문 앞으로 갔다. 숭례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 진고개(현재 중구 충무로 2가 일대)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저녁 해가 질 무렵이었다. 본정 2정목(현재 중구 충무로 2가)에 들어설 무렵부터 체포가 시작되었다.

군중은 송현마루턱을 지나서 육조 앞 광장으로 나왔다. ...생략... 군중들은 황토마루로 내려와 다시 패가 갈렸고, 필자는 서대문 쪽으로 가는 대열을 뒤따랐다. ...생략... 다시 군중들 틈에 끼여 독일 영사관을 향하여 지금 중앙관상대로 가는 언덕길을 올라설 때 한 패가 떨어져 정동골목으

로 들어갔다. 독일 영사관에서 회정하여 의주통을 지나갈 적에는 ...생략... 합동 프랑스 영사관에 들어가 한바탕 만세를 부르고 서소문으로 돌아서 대한문 앞으로 나왔다. ...생략... 대열의 선두는 대한문 안으로 들어가서 빈전을 향해 배례를 드리고, 군중들은 그 뒤에서 경건히 고개를 숙여 목도를 올렸다. 우리 일대는 거기서 승례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 진고개 골목으로 들어섰다. 저녁 해가 누엿누엿 저물어 가던 때였다. 일인들 가게 앞에는 헌병들과 순사들이 무시무시하도록 늘어섰고, 왜놈 왜년들은 게다(일본 나막신) 짝을 짝 짝 끌며 안달이 나서 왔다 갔다 했다. 이제부터는 체포 작전인 모양이었다. 독 속에 든 쥐처럼 썰 틈 없는 좁은 골목이라 본정 2 정목에 이르러서부터는 몽땅 체포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상가가 모조리 떨쳐 나와 협력이었다.(최은희, 1979: 99~100)

「최은희 신문조서」에도 이들의 경로가 나온다. 기숙사를 나가 종로, 창덕궁, 안국동, 광화문, 서대문에서 대한문, 본정통으로 행진하였다.

답 : 기숙사 근처에서 만세 소리를 들었고 잠시 후 동료들 20 명 정도가 문밖으로 나갔다. 그로부터 그 소리를 따라서 종로까지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 만세」 하고 외치고 있었으므로 나는 장래 조선이 독립할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뻐서 만세를 불렀던 것이다.

문 : 그 종로통에는 몇 사람 정도의 군중이 있었는가.

답 : 수천 명 정도 있었다.

문 : 그 후 군중 속에 뛰어들어 후열에 열을 지어서 창덕궁·안국동·광화문·서대문 근처까지 만세를 부르면서 걸어 다녔는가.

답 : 그렇다. 그리고나서 대한문으로 갔다가 본정통으로 갔다.

문 : 독립의 선언 등이 있다는 것을 미리 듣고 있지 않았는가.

답 : 아니다.(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 3. 7.)

「최정숙 신문조서」에서도 종로를 거쳐 본정통까지 만세를 부르며

다닌 정황이 기록되어 있다.

답 : 기숙사로는 들어오지 않았으나 그 근처에 많은 조선인들이 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소요하고 있는 것을 기숙사 창밖으로 보았으므로 나도 밖으로 나가 그 군중 속에 가담하였다. 그리하여 종로 거리에서 군중을 따라 대한문까지 갔었고, 다시 종로 거리로 되 돌아와서 창덕궁으로 갔다가 광화문 쪽으로 가서 다시 서대문 쪽으로 갔으며, 경성우편국 쪽으로 가서 본정통(本町通)으로 나왔다가 마침내 우리들은 체포되었던 것이다. 나도 같은 인간으로서 군중 속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군중 속으로 들어갔더니 모두가 「만세 만세」 라고 외치라고 하기에 나도 만세를 연달아 불렀다. 위의 군중들은 모두가 경성 안에 있는 학생들뿐인 것 같았다.(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 3. 5.)

답 : 나는 3월 1 일에는 발이 아파서 기숙사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시간은 알 수 없으나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기숙사에 있던 학생이 모두 뛰쳐나갔다. 나도 종로까지 갔더니 무교정(武橋町)을 거쳐서 대한문 쪽으로 군중이 만세를 부르면서 가고 있었으므로, 그 군중에 참가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대한문 앞·창덕궁 앞·경복궁 앞·서대문정·서소문정·장곡천정(長谷川町) 방면을 거쳐 본정으로 들어가다가 체포되었다. (경성지방법원, 1919. 6. 26.)

최정숙은 학교 기숙사에서 나가 종로에서 무교정을 거쳐 대한문 앞, 창덕궁 앞과 경복궁 앞, 서대문정과 서소문정, 장곡천정(현재 중구 소공동), 본정 등 서울 시내 일대를 다니며 만세 행렬에 참여하다 본정에서 체포되었다.

최은희, 최정숙 등의 만세 행진 경로를 통해 강평국의 만세 행진 행로 또한 짐작이 가능하다.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교동 기숙사에서 탑골공원을 향하다 천도교 총본부 쪽에서 만세행진 대열에 합류하여 학교정문을 지나 재동 네거리에서 창덕궁 쪽 혹은 안국

동 경복궁 쪽으로 행진하였다. 광화문 일대와 서대문과 서소문 대한 문 일대 본정 일대 등 당시 경성 시내를 하루 종일 다니며 만세 행렬에 참여하였다. 체포는 저녁 무렵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므로 강평국도 하루 종일 서울 시내에서의 만세운동 행렬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헌병들은 양편 손에 한 사람씩 손목을 잡고 남산 밑에 있는 경무총감부로 연행해 갔다. 군중은 끌려가는 길에서도 힘차게 만세를 불렀고, 총감부 마당에 꿇어 앉은 사람들도 새 사람이 잡혀 들어올 적마다 마주들 바라보며 만세를 불렀다. 그날 우리 학교 학생은 32 명이 잡혔는데 학교로 연락한 결과 교장이 명단을 조회하고(최은희, 1979: 101)

최은희와 최정숙은 검거되어 경무총감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서대문감옥에 수감되었다.

우리는 저녁 때 진고개(현재 충무로) 좁은 길목에서 헌병에게 체포되어 남산 밑 경무출감부<sup>12)</sup>로 갔다. 그날 우리 학교 학생 32 명이 잡혔는데 학교로 조회한 결과 30 명은 돌려보내고 ‘최은희와 최정숙은 거기 처분대로 하여달라’ 하여 우리는 유치장 신세를 졌다.

최정숙(해방 후 제주도 초대 교육감)은 5 일 만에 취조를 마치고 서대문 감옥으로 넘어갔고 나는 2 일 뒤에 넘어갔다.(최은희, 2003: 17)

강평국은 3월 1일 체포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김서옥의 회고에서 알 수 있다.

당시 강평국의 제자로 서울 유학을 갔던 김서옥씨(89 년 당시 81 세 작고, 제주 최초의 여성 초등학교 교장)는 만세운동 때의 그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했다.

---

12) 경무총감부를 말하는 것이겠으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3·1 운동 당시 만세를 불렀는데 최정숙은 종로로 나가다 붙잡혔고 강평국은 일본 기마병에 쫓길 때 어느 집에 들어가 병풍을 치고 앉아 머리를 쪽지고 앉아버렸다 해요. 그래서 색시처럼 보여 붙잡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제주문화원, 1998: 429)

강평국은 3월 1일 종일 서울 시내 만세 행렬에 참여하고 저녁 무렵부터 검거가 시작되면서 남의 집에 들어가 피신하여 잡히지는 않았다.

3월 1일 만세시위에서 붙잡힌 최정숙과 박규훈의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치안방해 죄명으로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판결의 이유를 명시하고 있다.

#### 이유

제 1. 피고 오세창(吳世昌), ...생략... 최정숙(崔貞淑), ...생략... 박규훈(朴圭薰), ...생략... (32명)은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의 선언을 발표한다는 것을 들어 알고는 그 취지를 찬성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불온한 행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려고 계획하여, 대정 8년(1919년) 3월 1일 오후 2시경 경성부 파고다 공원에서 위의 독립선언을 발표하여 수천 명의 군중이 독립만세를 외치고, 파고다공원에서부터 경성 시내를 행진하는 무리와 만나자 각 피고는 이에 참가하여 그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며 경성 시내를 미친 듯이 달리면서 치안을 방해하였다.(경성지방법원, 1919. 11. 6.)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경성 시내를 행진한 일이 치안을 방해한 죄라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언도하였다.

## IV. 강평국의 제2차 만세시위운동 참여와 수감

### 1. 제2차 만세시위운동

1919년 제2차 만세시위운동은 3.5학생운동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3월 1일 민족대표들이 체포되면서 그 이후는 학생단으로 운동의 주체가 넘어갔고 3월 5일 제2차 시위운동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3월 5일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의 제2차 만세시위운동이 일어났다. 3월 2일은 일요일이었고 종로 네거리 보신각 앞에 약 400명의 군중이 모여들어 만세를 부르는 등으로 만세운동의 분위기가 이어졌다. 3월 3일은 고종의 장례식이 있어 큰 시위는 없었으나 각종 격문과 인쇄물이 시내에 배포되어 독립운동의 의지를 돋우었다.(국사편찬위원회, 1988)

3월 1일 이미 학생 주최의 제2차 독립시위운동을 3월 5일 남대문역(현 서울역) 앞 광장에서 전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일제의 법정 문서인 「예심종결결정서」를 통해 살필 수 있다.

제 2. 위의 독립시위운동에 참획한 학생간부의 주동자는 미리 모의한 제 2 회 독립시위운동을 3 월 5 일로 결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생략... ‘내일 3 월 5 일 오전 9 시를 기하여 남대문 역전 광장을 집합지로 하여 학생 주최의 독립시위운동을 할 것이며, 그 방법으로 강기덕 및 김원벽을 선정하여 지휘의 임무를 담당하게 함에 따라 각자는 편의상 자기 학교 학생 또는 잘 아는 사람을 규합하여 참가시키도록 노력하라’ 는 뜻을 알렸으므로 각 참집자는 각각 동지에게 통고하고 또는 일반에게 주지시키고(경성지방법원, 1919. 8. 30.)

강기덕과 김원벽을 지휘책임자로 선정하고 각 학교 학생들에게 전

달하였다. 제주도 학생 채순병이 '5일 오전 8시 30분까지 남대문 부근에 태극기를 가지고 집합'하자는 전단을 인쇄하고 살포하는 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위의 제 2 회 시위운동 거사를 안 사립 중등학교 학생 피고 김종현, 경성 고등보통학교 학생 피고 최강윤, 사립 국어보급학관 학생 피고 채순병은 3월 4일 밤 당시 동숙하는 경성부 안국동 39번지 박태병(朴台秉) 집에서 내일 5일 다수의 군중을 남대문 역전에 초청함으로써 위의 운동을 성황리에 할 것을 공모한 다음 피고 김종현이 소유한 탄산지(炭酸紙) 및 골필 3개를 사용하여 내일 5일 오전 8시 30분 남대문 역전에 집합하고 제 2 회의 독립운동을 개최하니 태극기를 가지고 오라는 취지를 기재한 통고문 약 400매를 제작, 이를 3분하여 그날 밤 곧 피고 최강윤은 송현동 방면, 피고 채순병은 소격동 방면, 피고 김종현은 중학동 방면을 각각 중심으로 하여 각 집에 배부하였다.(경성지방법원, 1919. 8. 30.)

3월 5일 8시 남대문역 광장에서 만세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군중 수만이 운집하였다.

3월 5일 오전 8시 전후 남대문 역전에 쇄도하는 군중은 무려 수만을 헤아렸으며 강기덕, 김원벽은 모두 인력거에 탑승하여 '조선독립(朝鮮獨立)'이라 대서한 기를 휘날리며 달려와 제 2 회의 시위운동을 할 것을 선포하자 군중은 일제히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선두에 선 강기덕, 김원벽의 지휘에 따라 독립만세를 절규하면서 남대문으로 향하고 그 동안 어떤 자는 당일 독립운동자의 표시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적포(赤布)를 살포하여 이를 휘저으며 남대문에 이르자 군중은 경비를 위해서 출동한 경찰관현의 제지에 부딪쳐 강기덕, 김원벽 등의 검속된 자가 많았다. 이 제지를 면한 1대(隊)는 남대문 시장으로부터 조선은행 앞을 거쳐 종로 보신각으로 향하고 1대는 남대문에서 대한문 앞, 무교정(武橋町)을 지나 종로 보신각 앞에서 위의 1대와 합류하여 행진하여 독립 만세를 고창하고 극도로 소란을 피웠으나 마침내 그곳에서 경찰관현 때문에 해산하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경성지방법원, 1919. 8. 30.)

강기덕, 김원벽이 ‘조선독립’이라 쓴 기를 휘날리며 제2차의 만세 시위운동을 선포하였다. 군중은 독립만세를 부르며 남대문으로 향하였다. 남대문에서 학생들이 검거되기 시작했다. 군중은 남대문시장으로부터 조선은행 앞을 거쳐 종로 보신각으로 향하고, 또는 남대문에서 대한문 앞 무교정을 지나 종로 보신각 앞으로 행진하며 독립만세를 불렀다.

2차 만세시위운동에서는 여학생들의 기세가 높았다.

또 총독부 문서는 이상의 기록에는 없는 학생들의 서울역광장 집합 방법, 시위군중 더우기 여학생의 기세, 일본 경관의 발포사실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5일 아침 9시 남대문역 앞에 4~5 천의 학생 집단이 나타났다. 그들은 미명에 부근의 창고 뒤나 작은 골목에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일단의 무리가 되자 지휘자는 인력거에 타고 빨간 어깨띠를 메고 양손을 높이 쳐들고 선창을 하자 군중은 이를 둘러싸고 각자 만세를 고창하며 서대문 방면으로 대행진을 시작하였다. 이 행렬 중에는 여자 고등보통학교의 여학생이 더욱 빛을 내고 기세를 더하고 있었다. 이 군중이 대한문 앞에 이르자 경관에게 습격되고 해산을 명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전열이 매맞고 검거되면 다음이 또 열을 짓고 돌진하였다. 할 수 없이 발포하여 이를 위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검거된 자는 100 인, 그 중에는 많은 여학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날 여학생들은 용감하게 경비망을 뚫고 무교동 조선히otel 앞 등에서 시위를 하였으며, 서울의 시위는 점차 격렬하여졌다.(국사편찬위원회, 1988)

제2차 만세시위운동은 독립의 의지를 재결집하는 것이었고, 각 지방으로 독립운동의 기세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 2. 강평국의 제2차 만세시위운동 참여와 수감

강평국은 3월 5일 제2차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여 체포되었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하룻밤에는 수선수선하더니 3월 5일 학생 만세데모에서 검속된 학생들이 경찰취조를 받고 넘어왔다는 것이었다. ...생략... 그날 밤부터 2, 3일 연이어 수감되는 학생의 수가 늘어 널찍한 방에 14 인이 함께 있게 되었다. 경성여고보는 남학생의 연락으로 기숙생 전원 70여 명이 5일 새벽 사감의 눈을 피하여 남대문역 앞으로 나가서 데모에 참가하였다. 그날 검속된 노순열·이남재·강평국·유재룡·이금자 등과 정신학교 임충실·박남인·김경순, 숙명여고보 조경민 등이 함께 있게 되었고,(최은희, 1979: 104)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는 3월 5일의 학생 만세운동에 기숙사생 전원 70여 명이 남대문 역으로 나가 참가하였다. 앞서 살폈던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위관련자 동정 및 성행조회」에 의하면, 기숙사에서 수령급이었던 최은희, 최정숙은 3월 1일 체포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3월 5일의 제2차 만세시위 참여를 주도한 사람은 강평국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남학생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제2차 만세시위운동에 참여를 주도하였다. 3월 5일 강평국 등 5명이 추가로 수감되어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은 모두 7명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3월 1일 체포된 최은희, 최정숙과 2차 만세시위운동으로 체포 수감된 강평국, 노순열, 이남재, 유재룡, 이금자였다. 이들 7명은 바로 비밀서클의 중추인물이었다.(최은희, 1979: 93)

고수선<sup>13)</sup>의 회고에도 강평국의 만세운동 참여 모습이 있다.

13) 고수선: 1919년 3월 1일 박희도의 지시를 받아 학생을 동원·인솔하여 탑골공원으로 가서 시위에 참가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국내와 연락하는 사무를 보다가 군자금 모집의 사명을 띠고 370원을 모금해서 송금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

우리는 끝까지 종로 경찰서 앞까지 갔다. 서울역에 당도, 용산서 총을 쏘아대자 바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피신, 4 인이 약속키를 우리는 끝까지 계속 입할 것을 약속, 제동 유철경 선생덕에서 등사, 머리동이를 만들어 박규훈씨에게 전달, 최선생은 종로로 가다 대중에 휩쓸렸다가 체포, 수고는 강 선생이 많이 했다.(제주문화원, 1998: 429)

강평국과 고수선은 종로경찰서 앞, 서울역, 용산, 세브란스 병원 등지로 다녔음을 알 수 있다. 고수선의 이 기억은 2차 만세시위운동의 기억으로 보인다. 3월 1일의 행로는 서울역과 용산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서술에는 서울역에 간 것과 유철경 선생덕에서 머리동이를 만들어 박규훈에게 전달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2차 만세시위운동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인다.

최은희의 서술을 통해 서대문형무소 안에서의 이들의 모습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감옥 안에 누구누구가 들어와 있는지가 무척 궁금하였다. 10분 동안 용수를 씌워 마당에 내보내 주는 운동시간이나 땃국물에 텀병 몸을 담궜다 나오는 목욕을 하고 돌아올 때면 다른 감방에서는 변기통에 올라서서 손가락에 침을 묻혀 높다란 유리창에 자기 이름을 써보였다. 우리들은 따라다니는 간수 모르게 용수를 번쩍 들어 얼굴과 가슴에 붙인 번호표를 대조시키기도 하였고, 방비를 뜯어 갈대 끝으로 잇몸을 찢러 피를 내어 휴지에 몇 자 써서 식사를 돌려주는 기결수 여자 편에 전달시켜 통성명을 한 일도 있었다.(최은희, 1991: 117~118)

3월 24일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비밀서클 동지 7명이 모두 석방되었다.

3월 24일, 일본 여간수는 갑자기 우리 감방문을 열더니 황에덕 한 사람만 남겨놓고 전부 불러내었다. 다른 감방에서도 낯 모르는 학생들이

---

령표창)에 추서되었다. (출처: 국가보훈처).

나왔다. 교회실(敎誨室)로 모아놓고 교회사(敎誨師)와 전옥이 혼시를 한 다음 각각 데리러 온 학교 책임자에게 인도케 하여 돌려보냈다. 우리학교 학생은 모두 7명, 쓰지꾸 사감과 나카무라(中村) 교무주임이 맞으러 왔다.(최은희, 1979: 105)

교회사와 전옥이 혼시를 한 다음 학교 책임자에게 인도하였다. 기숙사 사감과 교무주임이 맞으러 왔다.

이들의 석방은 일제 당국과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교장과의 교섭에 의한 일시적인 석방이었다.

일설에 의하면 경성여고보 학생들은 교장이 검사국에 졸업예정자들은 불기소처분을 내려 일단 석방시켰다가 졸업장을 주어 내보낸 다음 재수감하여도 좋다는 조건부 교섭을 하였고,(최은희, 1979: 107)

경성여고보 교장이 검사국과 교섭한 결과, 졸업장을 주어 학교에서 내보낸 다음 재수감을 조건으로 일단 석방을 한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정숙은 석방 후 제주도로 귀향하였다가 다시 재수감되어 신문을 받는다.

최정숙은 고향 제주도로 돌아간 지 20 일 만인 4월 14일 그곳 경찰서에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호송장을 가지고 왔다. 제주경찰서에서 일박하고 이튿날 선편으로 압송되어 검사국 유치장에서 그날 밤을 새우고 서대문형무소로 옮겨졌다. 3월 1일 만세사건에 대하여 일단 석방하였다가 재수감시켜 예심에 회부한 것이다.(최은희, 1991: 119~120)

또한 최정숙의 재수감은 법정 문서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3·1 독립시위 관련자 예심조서 최정숙 신문조서 (2회)」(경성지방법원, 1919. 6. 26.)와 「수형인명부」(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 11. 6.)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최정숙은 3월 24일 석방된 이후 6월 26

일 다시 경성지방법원의 신문을 받았으며, 「수형인명부」에는 미결 구금 즉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 기간이 90일임이 기록되어 있어, 최정숙이 다시 수감되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최은희의 서술에 의하면, 교장에게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만 첫 날 만세시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큰 부담이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교장은 이들을 빨리 졸업시켜야 학교학생이 아니게 됨으로 책임을 면하고 싶은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였다. 졸업장을 받아가지 않은 학생들에겐 직접 그들의 향리로 우송시키기도 하였다.

교장의 입장은 난처했다. 3월 1일 첫날에 자기 학교만이 시위에 가담하였다는 것과 첫날에 검거된 두 학생(최정숙과 필자)이 본과와 사범과의 졸업반이라는 데 무슨 연결이 있는 것도 같았다. 『빨리 졸업장만 내주면, 학생도 아니요 교사도 아닌 무직자가 되는 것인즉 학교와는 성가스러운 관계가 끊어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인지 졸업장을 그들의 향리로 각각 우송해 버렸다.(최은희, 1979: 107)

기숙사에서 하룻밤을 자고 석방된 7명은 유철경 선생택에 점심 초대를 받았다.

전원이 기숙생이었던 우리들은 3월 10일 총독부 학무국 임시휴교령에 의하여 귀향조치를 한 후여서 텅 빈 기숙사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생략... 그 이튿날 우리 7명은 유철경 선생택에 비밀히 점심초대를 받았다. ...생략... 그 덕 뒤란의 석굴 속에 촛불을 켜놓고 고수선·신경우 등 몇 학생이 빨간 머리동이를 수천 개 찢어서 경성고보 학생들을 통하여 각 학교 학생에게 분배해 주어 3월 5일 남녀 학생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최은희, 1979: 105~106)

선생택에서 고수선 등이 만든 빨간 머리동이를 경성고보 등의 학

생들에게 나누어주어 3월 5일의 제2차 만세시위운동에 사용하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제2차 만세시위에 참여하여 검거된 사람들도 조선독립을 위한 시위운동에 찬성하여 불온한 행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치안방해죄로 징역 6개월의 형이 언도되었다.

제 2. 피고 조봉룡(趙鳳龍), ...생략... (10 명)과 함께 학생단이 제 2 회의 조선독립 시위운동이 있음을 듣자 그 취지를 찬성하여 함께 정치에 관한 불온한 행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려고 계획하여, 3월 5일 경성부 남대문역에서 독립기(증 제 115 호)를 앞세우고 붉은 천(증 제 112 호)을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치는 수백 명의 군중과 만나자 각 피고는 즉시 위 무리에 참가하여 피고 조무환은 증 제 117 호의 붉은 천을 흔들며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며 경성 시내를 미친 듯이 달림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경성지방법원, 1919. 11. 6.)

강평국은 3월 1일에 이어 3월 5일의 제2차 만세시위운동에 다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기숙사생 70여 명을 이끌고 참여하였다. 남대문역 광장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남대문 시장, 조선은행 앞, 종로 보신각, 대한문 앞, 무교정 등지로 독립만세를 부르며 행진하는 대열에 참여하였다. 검거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고, 3월 24일 석방되었다.

## V. 맺음말

강평국은 1919년 3월 1일과 3월 5일의 만세시위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강평국의 독립운동은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강평국은 1917년부터 박희도가 이끄는 비밀서클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위한 지도를 받았다. 최은희, 최정숙, 고수선 등과 함께 비밀서클의 주요인물로 활동을 이끌었다. 비밀서클은 민족운동 인사들의 강연을 들으며 독립정신을 고취해 나갔다. 강평국은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이끌던 수령급 중 한 사람으로 학생들을 고종의 대한문 곡반에 나가게 하는 시위를 주도하였다. 검은 리본과 땀기를 패용하게 하는 활동도 함께 했다.

1919년 2월에 들어 독립정신을 심어주는 강연회에 기숙사 학생들을 동원하여 함께 하기도 하는 등으로 활동하던 중, 2월 28일에는 제주도 남학생 박규훈 등에게서 3월 1일의 만세운동의 실시를 전달 받고 학교 내에 알렸다.

3월 1일 강평국은 비밀서클 동지들과 함께 단힌 교문을 부수고 학생들을 만세 행렬로 이끌었다. 교동 기숙사에서 나와 학교가 있던 경운동, 창덕궁 앞, 안국동, 광화문, 종로, 무교동, 서대문, 서소문, 대한문, 충무로 등 서울 시내 일대를 하루 종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다녔다. 강평국은 인가에 숨어들어가 체포되지 않았다.

3월 5일 강평국은 기숙사생 전원을 이끌고 남대문역 광장의 제2차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 남대문시장, 조선은행 앞, 종로 보신각, 대한문 앞, 무교동, 종로 보신각 등지로 행진하며 독립만세를 불렀다.

강평국은 제2차 만세시위운동으로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었다. 비밀서클의 주요 인물이었던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7명이 함께 수감되어 있다가 3월 24일 석방되었다. 학교 교장이 졸업을 이유로 해서 재수감할 것을 조건으로 검사국과 교섭한 임시 석방이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강평국은 1917년 박희도의 비밀서클 활동에서부터 독립운동에의 의지를 다졌다. 비밀서클의 주요인물로 활동하며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을 이끄는 수령급 중의 한 사람이었다. 3월 1일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을 이끌고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였

고, 다시 3월 5일 제2차 만세시위운동에 기숙사생 전원을 이끌고 참여하여 체포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강평국은 33세에 요절하였다. 유족도 없다. 강평국 관련 자료마저 없어 오늘날까지 그의 이러한 독립운동 업적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강평국의 독립운동을 조명하기 위하여 3.1운동 관련 행적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이후 강평국의 교육활동과 여성운동 참여 등을 후속으로 연구하면 강평국의 민족운동에 대한 더욱 확실한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본고를 그 기초적 연구로 제시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3·1 독립시위 관련자 신문조서(검사조서) 최정숙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 3. 5.), 국사편찬위원회.
- 「3·1 독립시위 관련자 신문조서(검사조서) 최은희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 3. 7.), 국사편찬위원회.
-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위관련자동정 및 성행조회」(경성종로경찰서장, 1919. 3. 27.), 국사편찬위원회.
- 「3·1 독립시위 관련자 예심조서 최정숙 신문조서 (2회)」(경성지방법원, 1919. 6. 26.), 국사편찬위원회.
- 「예심종결결정서」(경성지방법원, 1919. 8. 30.), 국가기록원 소장.
-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19. 11. 6.), 국가기록원 소장.
- 「수형인명부」(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 11. 6.), 국가기록원 소장.

2. 논문

- 한금순, 2015, 「최정숙의 3·1운동 재판 관련 문서 분석」 『제주도연구』44집, 제주학회.
- \_\_\_\_\_, 2016, 「최정숙 독립운동 재판관련 문서 자료집 해제」 『최정숙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제주항일기념관.

3. 도서

- 국사편찬위원회, 1987, 『한민족독립운동사』3권.
- \_\_\_\_\_, 1990,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3.
- \_\_\_\_\_, 1991,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4.
- \_\_\_\_\_, 1994,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7.
- 김찬흡, 2000, 『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원.
- 이성근, 1999, 『한일 양국 초대 여기자의 삶』, 와우.
- 제주도, 1996, 『제주항일독립운동사』, 제주도.
- 제주문화원, 1998, 『제주여인상』.

濟州島研究 제51집

- 최은희, 1979, 『조국을 찾기까지』상, 중, 하, 탐구당.  
\_\_\_\_\_, 1991, 『여성 전진 70년』, 추계 최은희 기념사업회.  
\_\_\_\_\_, 1991, 『한국 근대 여성사』(상)(중)(하), 추계 최은희 문화사업회.  
\_\_\_\_\_, 2003, 『여성을 넘어 아낙의 너울을 벗고』, 문이재.  
한금순, 2013,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 경인문화사.

4. 기타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Abstract

## Kang Pyeong-kuk's Engagement in 3.1 Movement and her Detention

Han, Geum-Soon\*

Kang Pyeong-kuk was the political activist from Jeju who engaged in 3.1 movement in 1919. Kang became the member of the secret society for independence movement that was led by Park Hee-do from 1917, and she played the key role with other activists like Choi Eun-hee, Choi Jeong-suk, and Ko Soo-sun. Kang studied at Kyung-seong Women's High School, and became one of leading person in the student group. In February 28th of 1919, Kang notified the students of the demonstration on March 1st, after Park Kyu-hoon informed her of its plan. On March 1st, Kang broke the closed gates of her school with the other members of the secret society to participate in the 3.1 movement. Kang led the crowd of demonstrators throughout the day with appealing for Korean independence. On that day, Kang evaded the police detention with hiding herself in the houses nearby.

On March 5th, Kang engaged in the 2nd demonstration at the square near Namdaemun station. Kang organized the students in

---

\* Namnyeong High School

the school dormitory to march for Korean Independence over the city of Seoul. Then, Kang was arrested for this 2nd demonstration and detained at Seodaemun Prison until March 24th. At that time, Kang was detained with other 7 students of Kyung-seong Women's High School who were also the leaders of the secret society. However, Kang's activities for Korean independence was not widely known to the public, because Kang died young in 1933 with no bereaved family afterwards who would commemorate Kang's activism.

**Keywords : Kang Pyeong-kuk, 3.1 Movement, Independence Activists in Jeju, Female Independence Activist, Seodaemun Prison**

교신 : 한금순 63223 제주시 남광북 3길 18-6  
(E-Mail : gmsnhan@korea.kr)

논문투고일 : 2019. 01. 03

심사완료일 : 2019. 01. 24

게재확정일 : 2019. 01. 28